

꼬마오리 니버

신혜은 글 • 조경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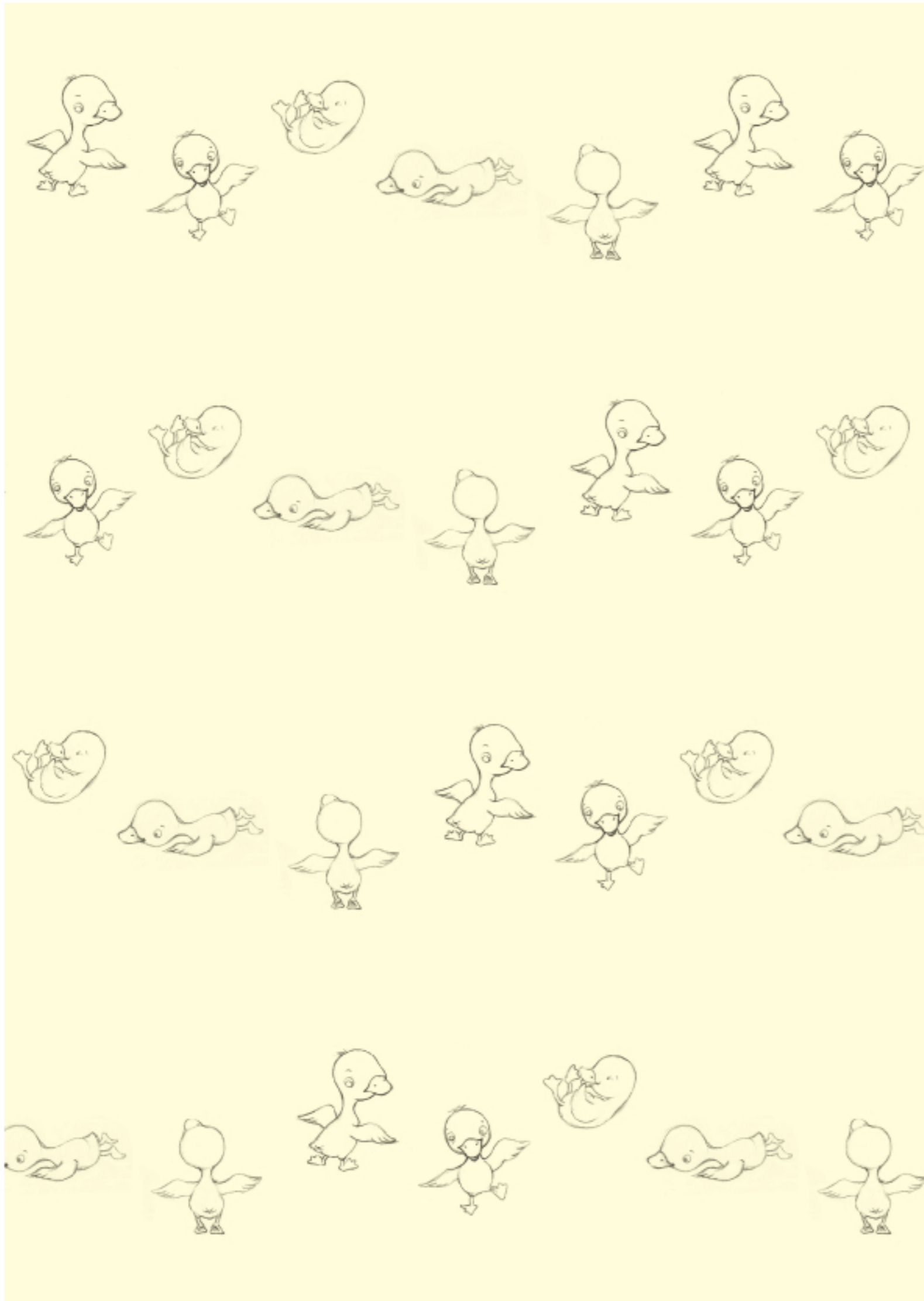


소아암 교육동화 시리즈 2



꼬마오리 니버

신혜은 글 • 조경아 그림



글쓴이 신혜은

성균관대에서 아동학을 전공한 아동심리학자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한 책을 기획하고 글을 써왔습니다.
현재 성균관대 연구교수이며, 지은 책으로 <비가오면> <나비잠> <분 동안> 등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 에너지가 꼬마오리 니버를 응원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린이 조경아

홍익대학교에서 만화를 전공하고, 2009년부터 아동교육극단 '시다리'에서
<개구리 왕자> <모자와신발> <아중첩 그림속이야기> 및 여러 편의 아동극 무대디자인과 인형제작을 하였고,
자금은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꼬마오리 니버를 소개합니다~”

이름: 니버

우주를 뜻하는 영어 '유니버스'에서 가운데 두 글자만 딴 것입니다.
저 넓은 우주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엄마아빠가 지어 주신 거랍니다.

성격: 귀여운 개구쟁이

가장 좋아하는 것: 거북이랑 산책 가기

매력 포인트: 반짝이는 눈망울

좌우명: 난 언제나 니버다!

꼬마오리 니버

초판 1쇄 • 2008년 11월 28일

초판 3쇄 • 2013년 1월 18일

글 • 신혜은 | 그림 • 조경아

발행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40-7 인성빌딩 4층

전화 : 02) 766-7671~3

홈페이지 : <http://www.kclf.org>

이메일 : cancer@kclf.org

비매품 | 본 재단의 허가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Copyrights ©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2008.



작은 꼬마 오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니버.

노란 솜털에, 노란 입, 납작 발도 노란 그런 아기 오리였지요.

니버는 친구 거북과 함께 산책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오늘도 산책 가니?”

노새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우리도 갈래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네?”

갓 깨어난 아기 거위들이 뽁뽁거렸습니다.

“안돼 너희들은 조금 더 커야 한단다.”

엄마 거위가 말했습니다.

“그래 애들아 좀 더 크면 같이 가자.”

니버와 거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노란 내 솜털이 정말 좋아.”

언덕에 올라간 니버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좋아. 하지만 난 네 노란 납작 발이 더 좋아. 후후”

거북이 말했습니다.

“그래, 난 네 딱딱한 등껍질이 좋아.

그리고 들락날락 네 목도 마음에 들고.”

니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다.”

“하하하.”

“헤헤헤.”



어느 날 인가부터

니버는 감기에 걸린 것처럼 기운이 없었습니다.

노란 솜털 아래로 여기저기 파란 명도 생겼습니다.

“니버 몸이 왜 이러지?”

놀란 엄마와 아빠는 니버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엄마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니버는... 암에 걸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암에 걸려요?”

“혹시 결과가 잘못 나온 건 아닌가요?”

아빠는 니버를 안고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기 오리는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 니버가 무슨 잘못된 게 있다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엄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치료를 하면 정말 니버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그럼요, 희망을 가지세요”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빠는 계속 같은 질문만 했습니다.





‘왜 하필 나지?
아냐, 믿을 수 없어.
한밤만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다시 원래 대로 되어 있을 거야. 자야지. 잘거야’
니버는 눈을 감고 얼른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그래 아가, 엄마가 네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엄마는 니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걱정 마라 니버. 넌 꼭 나을거야.
아픔이 밤처럼 계속 될 수는 없는 거란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니버의 소식은 곧 마을에 퍼졌습니다.

“니버가 암에 걸렸대요.”

“저런... 어찌나.”

“힘들겠지만 니버는 씩씩하게 잘 이겨낼 거예요.”

“그렇죠? 꼭 나올 거예요.”

거북이 니버를 찾아왔습니다.

“괜찮니, 니버?”

“응 아직은. 그렇지만 곧 항암 치료를 받으면 내 머리털이 다 빠질 거래.”

“뭐? 전부 다?”

“응. 거북아, 넌 노란 솜털 없는 나를 상상할 수 있니?”

거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항암 주사는 생각만큼 많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니다.
 골수 검사를 할 때는
 노새 아저씨 뒷다리만큼 굵은 바늘이
 몸을 뺑 뚫어 놓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니버는 계속 토했습니다.
 하늘이 빙빙 돌고
 온몸에서 힘이 하나도 남김없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니버, 아가 조금만 더 힘내자. 응?”
 “엄마, 토하지 않는 약은 어디 없나요?
 나쁜 암을 없애는 약도 있는데 왜 토하지 않는 약은 없어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곁에 있어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니버의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빠지더니

이제는 하룻밤 사이에도 뭉텅뭉텅 빠졌습니다.

“아빠, 털은 왜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가, 나쁜 병균을 죽이는 주사약이 너무 독해서 그런 거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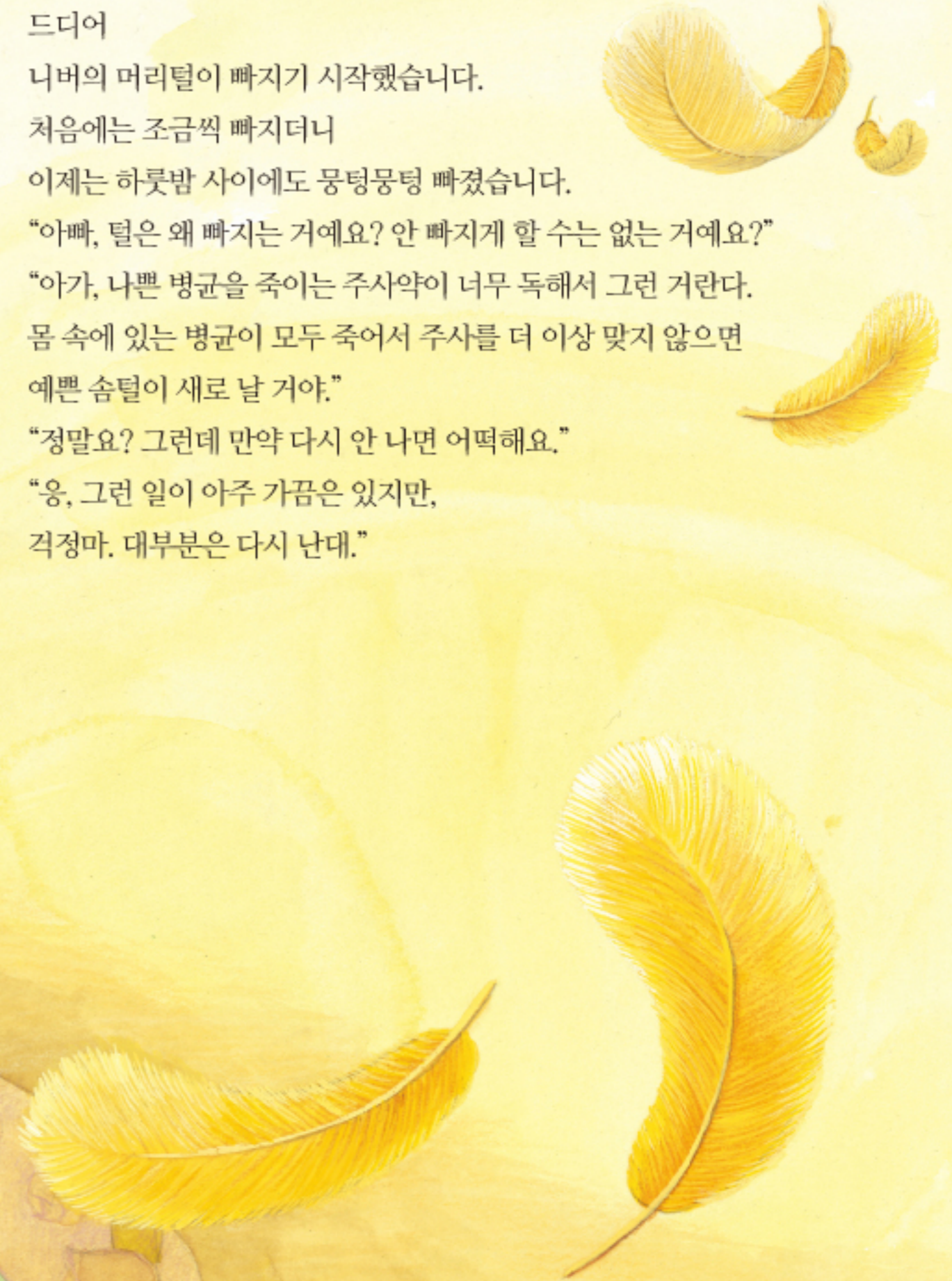
몸 속에 있는 병균이 모두 죽어서 주사를 더 이상 맞지 않으면

예쁜 솜털이 새로 날 거야.”

“정말요? 그런데 만약 다시 안 나면 어떡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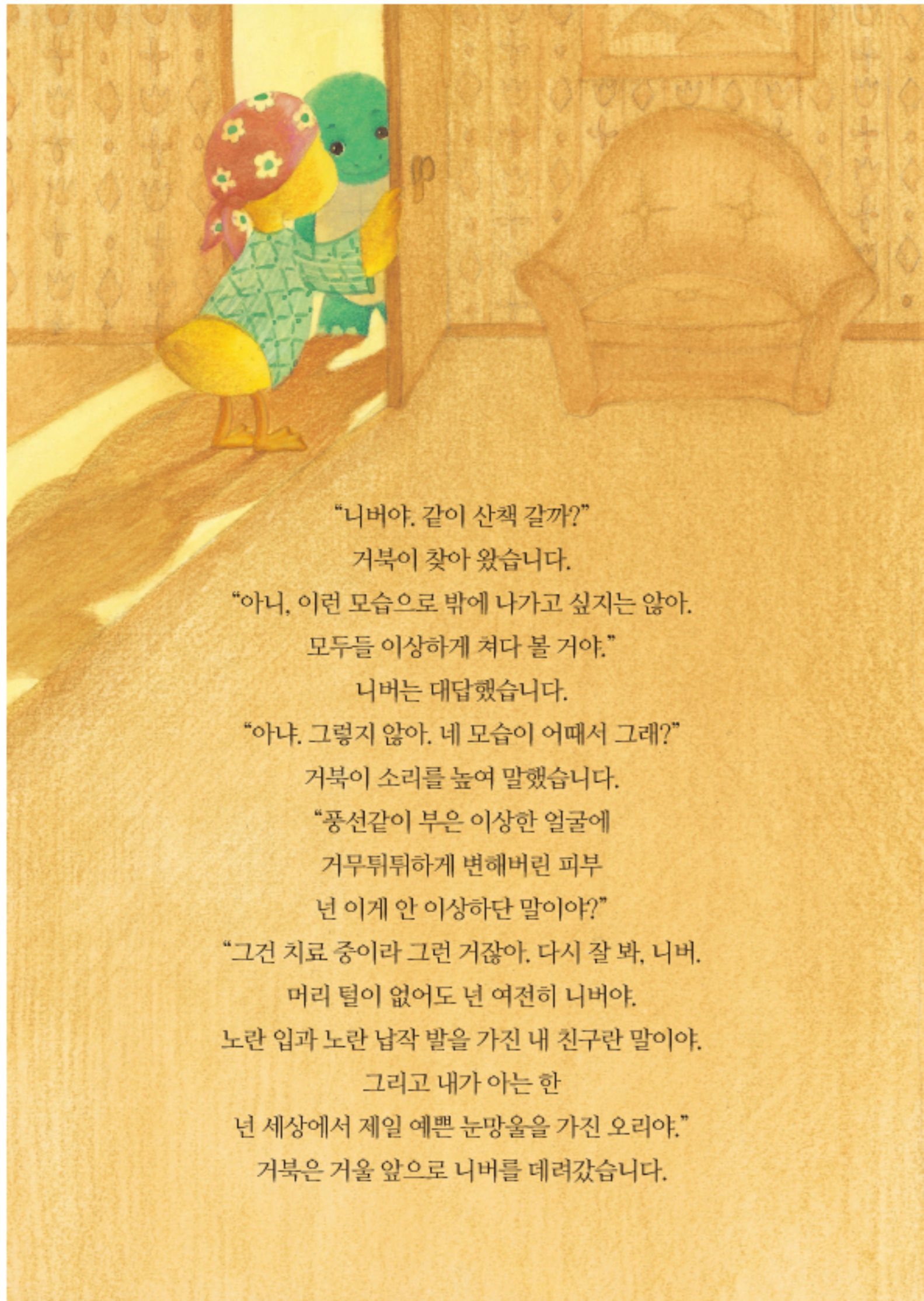
“응, 그런 일이 아주 가끔은 있지만,

걱정마. 대부분은 다시 난대.”



이제
니버의 머리털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낫선 오리가 보였습니다.
“너 누구니?”
거울 밖의 오리가 물었습니다.
“너 누구니?”
거울 속의 오리도 물었습니다.
“난 노란 솜털을 다 잃은 아기 오리야.”
거울 밖의 오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노란 솜털을 다 잃은 아기 오리야.”
거울 속의 오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울 밖의 오리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니버야. 같이 산책 갈까?”
거북이 찾아 왔습니다.
“아니, 이런 모습으로 밖에 나가고 싶지는 않아.
모두들 이상하게 쳐다 볼 거야.”
니버는 대답했습니다.
“아냐. 그렇지 않아. 네 모습이 어때서 그래?”
거북이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풍선같이 부은 이상한 얼굴에
거무튀튀하게 변해버린 피부
넌 이게 안 이상하단 말이야?”
“그건 치료 중이라 그런 거잖아. 다시 잘 봐, 니버.
머리 털이 없어도 넌 여전히 니버야.
노란 입과 노란 납작 발을 가진 내 친구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아는 한
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눈망울을 가진 오리야.”
거북은 거울 앞으로 니버를 데려갔습니다.



소아병동

니버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넌 모자가 몇 개니?”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오리가 물었습니다.

“응? 나는 아직 이거 한 개 밖에.”

“그럼 더 있어야겠다. 난 30개나 있어.

그 중에서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 오리는 벗어 놓은 사과 모양 모자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참 눈이 예쁘구나.”

“어디 어디?”

그 소리에 다른 오리들이 니버 주위로 몰려 들었습니다.

며칠 뒤 니버는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암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오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니버처럼 머리털이 빠지고 없었습니다.

모자를 쓴 오리도 있었고,

두건을 쓴 오리도 있었고

아무것도 쓰지 않은 오리도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낫는다!!! 난 낫는 중이다.”

“맞아, 나도 나도!”

머리털이 다 빠진 회색 아기 오리 두 마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다음날

니버는 거북이네 집 앞으로 가서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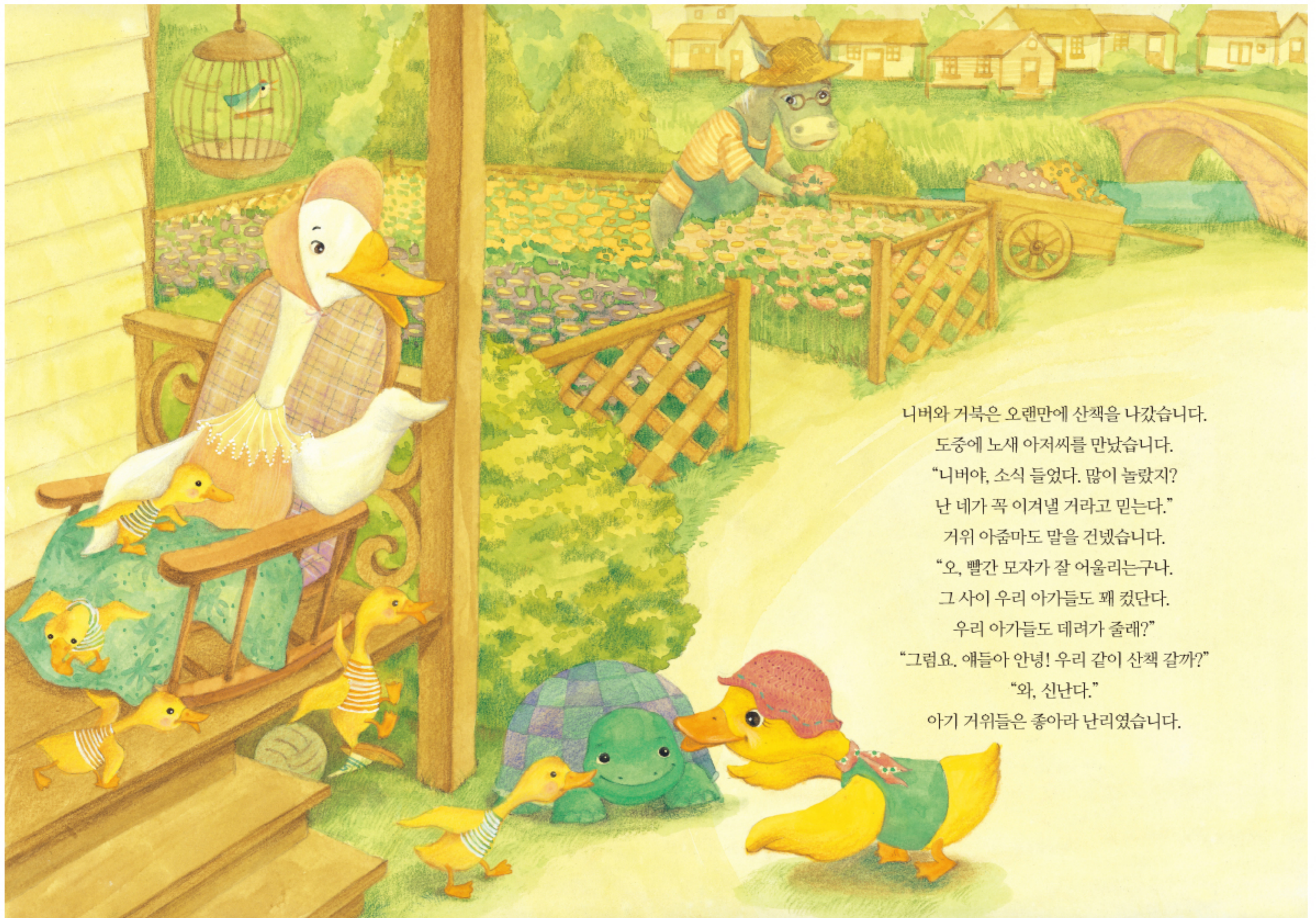
“거북아, 내 새모자 어때?”

“뭐?”

놀란 거북이 한달음에 기어 나왔습니다.

“와! 잘 어울린다. 멋진걸!”





니버와 거북은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도중에 노새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니버야, 소식 들었다. 많이 놀랐지?
난 네가 꼭 이겨낼 거라고 믿는다.”

거위 아줌마도 말을 건넸습니다.


“오, 빨간 모자가 잘 어울리는구나.
그 사이 우리 아기들도 꽤 컸단다.

우리 아기들도 데려가 줄래?”

“그럼요, 애들아 안녕! 우리 같이 산책 갈까?”

“와, 신난다.”

아기 거위들은 좋아라 난리였습니다.



난 니버다~

“니버!”

거북이 나지막이 니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 알아요. 난 니버야.”

니버가 말했습니다.

“노란 솜털 다 빠져도 반짝반짝 눈망울에
네가 좋아하는 노란 납작 발도 있고 안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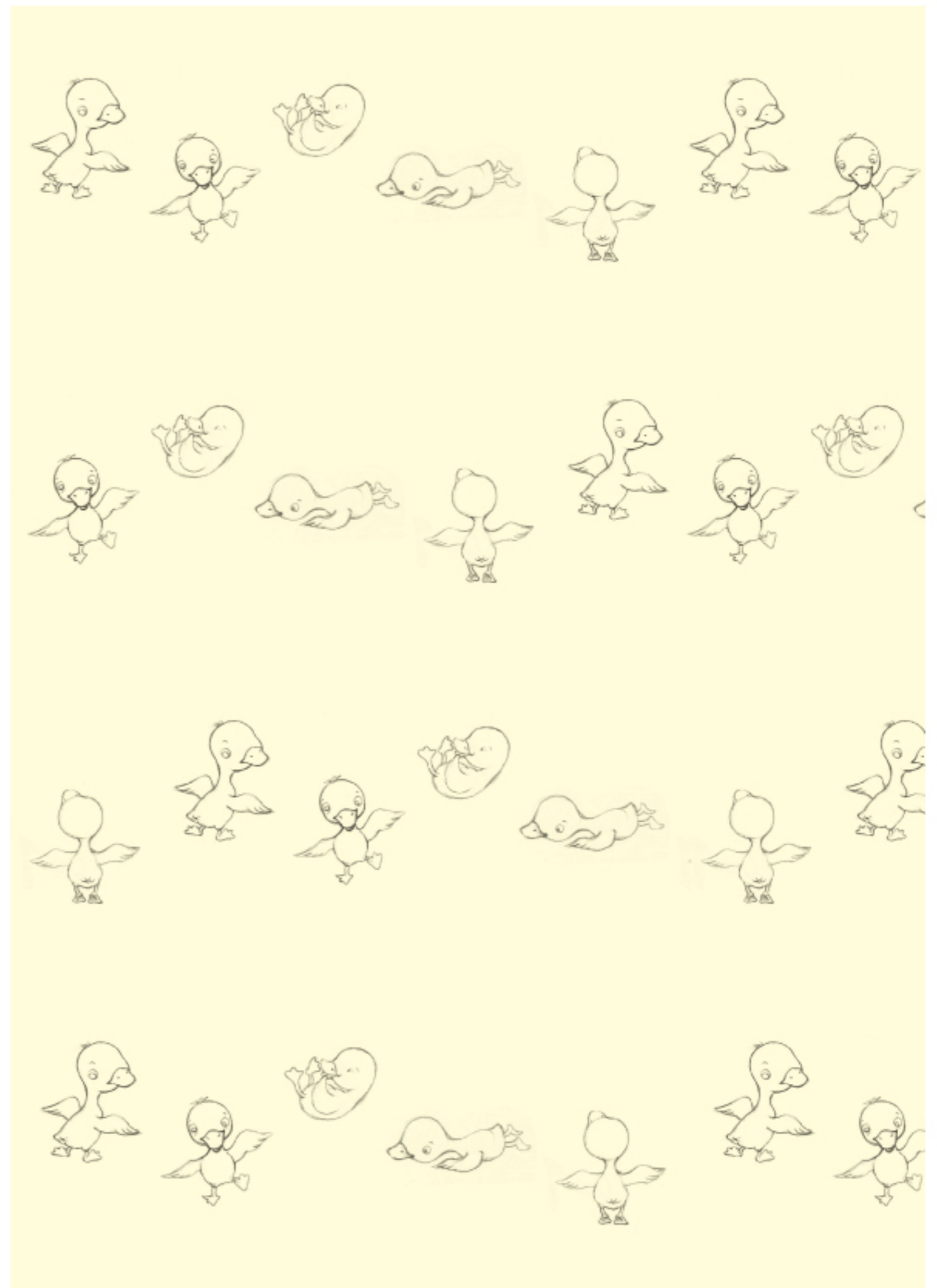
“그래, 맞아. 넌 언제나 너야.”

“얘들아, 우리 언덕까지 뛰어갈까?”

“좋아, 좋아.”

“자, 달리자.”

이 책은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치료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니버는 오늘도 씹씹하게
산책을 갑니다.”

이 책은 * KB국민은행 후원으로

 한국 어린이문학재단에서 제작하였습니다.